



Macro Review

10월 한국 수출: 수요 부진 심화

▶ Economist 임혜윤 hylim@hanwha.com 02-3772-7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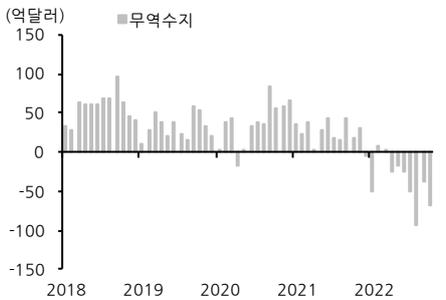
[주요 데이터 및 차트]

일평균 수출액 24.4억달러로 감소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무역수지 7개월 연속 적자. 올해 누적 적자는 356억달러



자료: 관세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0월 한국 수출은 24개월 만에 전년동월대비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단가 상승 효과 또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기를 감안하면, 수출 감소 흐름은 적어도 2023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24개월 만에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수출

10월 한국 수출은 524.8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7% 감소, 수입은 591.8억 달러로 9.9% 증가. 일평균 수출과 선박 제외 일평균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7.9%, 8.0% 감소

對중국 수출이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15.7%).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이 對중국 수출 감소 주도. 품목별로는 반도체(-17.4%) 수출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데, 석유화학과 철강 수출도 단가 하락 영향으로 감소. 15대 주요 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2차전지 등 4개

수출단가는 7.6% 상승, 물량은 12.4% 감소. 석유제품이 단가 상승을 주도(+29.1%). 물량 감소는 글로벌 수요 둔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무역수지는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7개월 연속 적자(-67.0억달러). 3대 에너지원(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42.1% 급증. 이에 더해 핵심 중간재(반도체, 정밀화학원료) 수입 증가세도 강화. 1~10월 누적 무역수지는 356억달러 적자

2023년 상반기까지 수출 감소 흐름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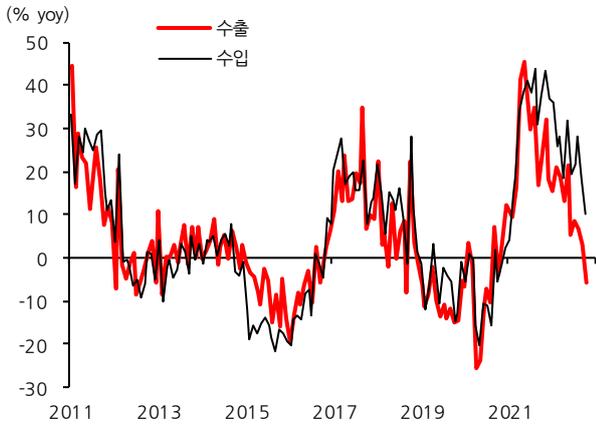
수출 감소는 글로벌 수요 둔화를 반영. 당사는 2023년 상반기까지 경기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당분간 수출의 감소 흐름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품목별 수출실적을 보면, 수요 둔화 흐름 더욱 뚜렷. 실적 변동 폭이 큰 선박을 제외하면, P와 Q가 전월대비 동반 개선된 품목을 찾기 어려움. 최근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석유제품, 자동차, 2차전지 수출도 주춤한 모습. 반도체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P 상승 효과 또한 peak out. 향후 수출 감소 폭 확대 예상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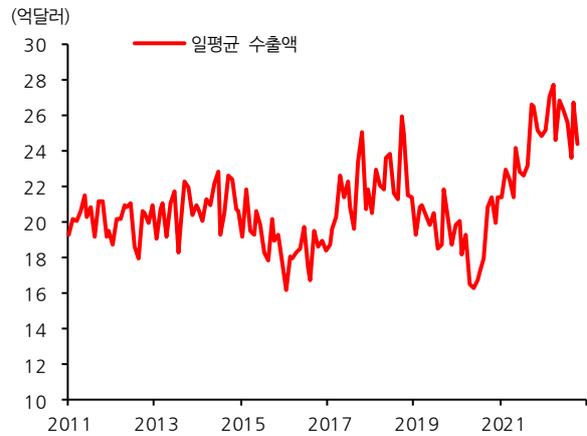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림1] 10월 수출/입, 각각 YoY -5.7%,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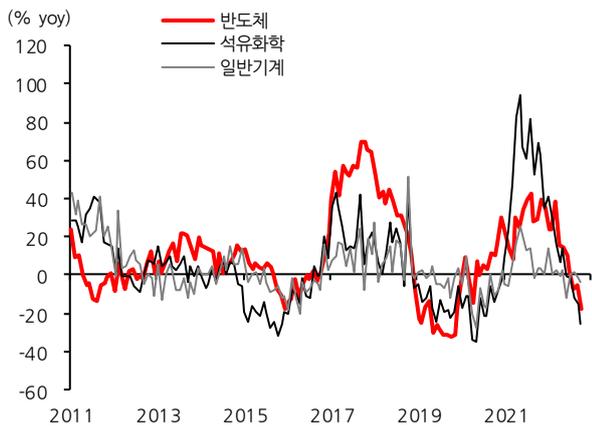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일평균 수출액 24.4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7.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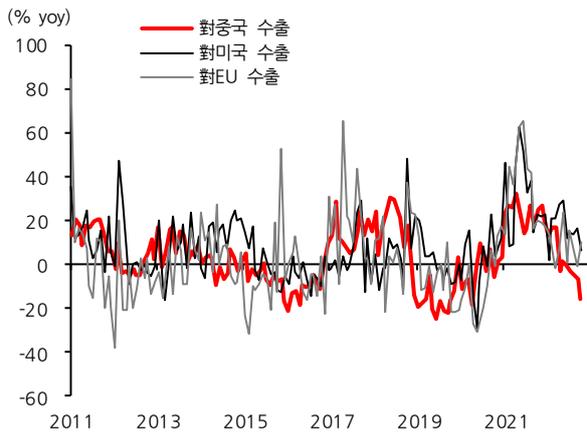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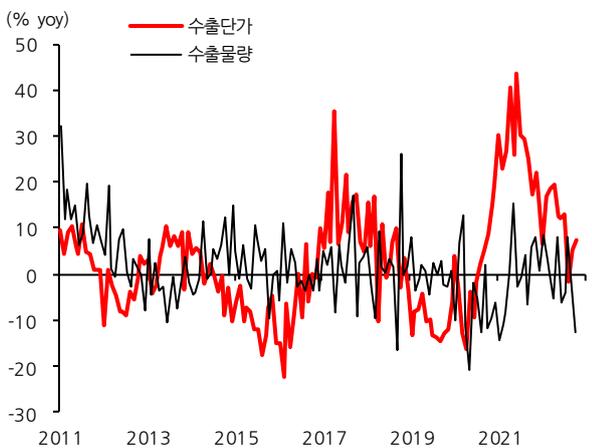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對중국 수출,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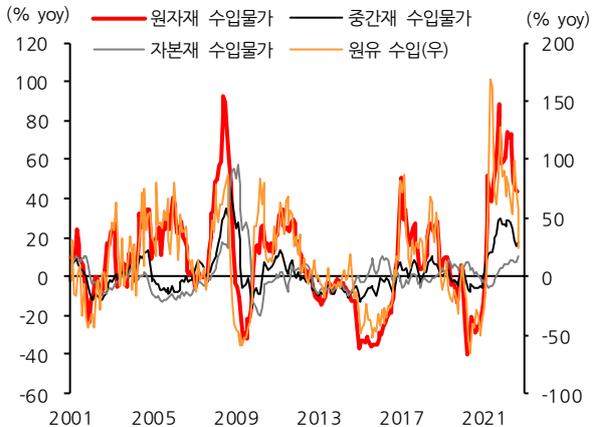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수출단가 상승세 강화되었으나, 수출물량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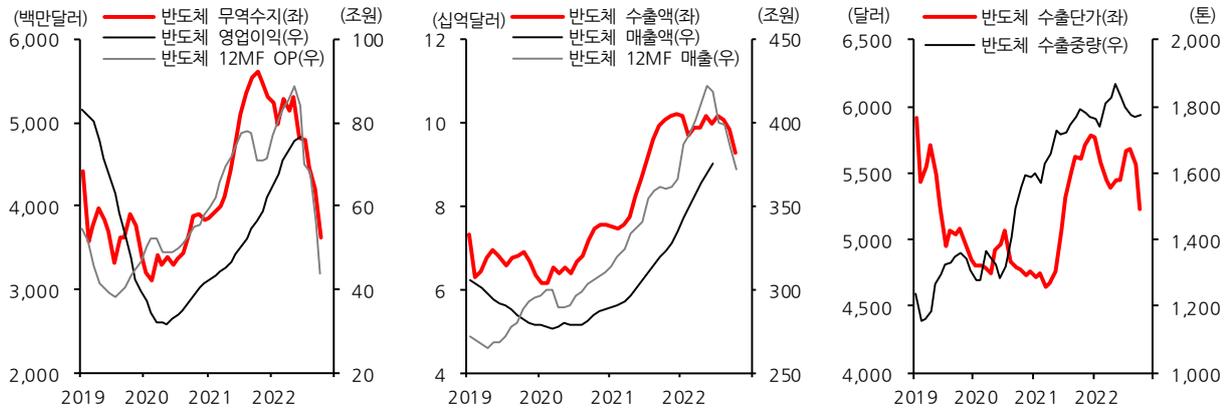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3대 에너지원 가격은 여전히 지난 해 대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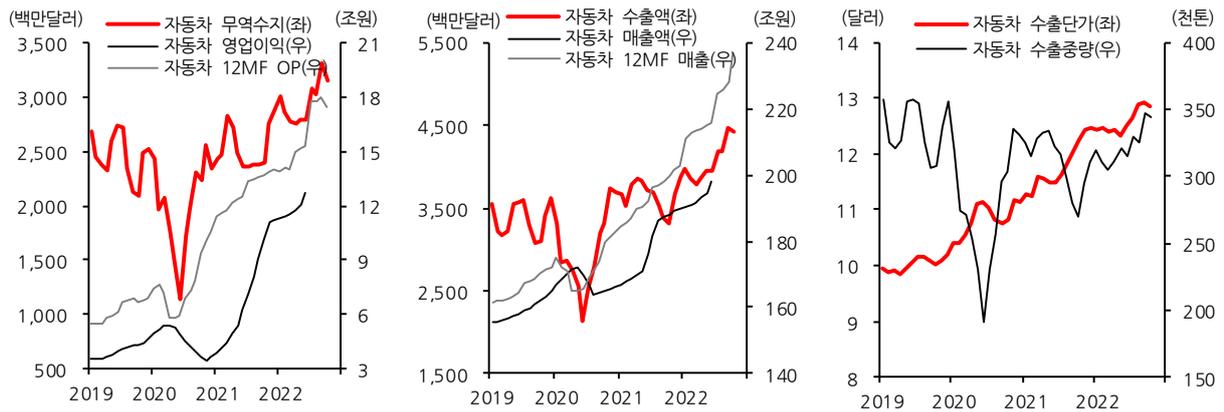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반도체: 단가 하락 및 물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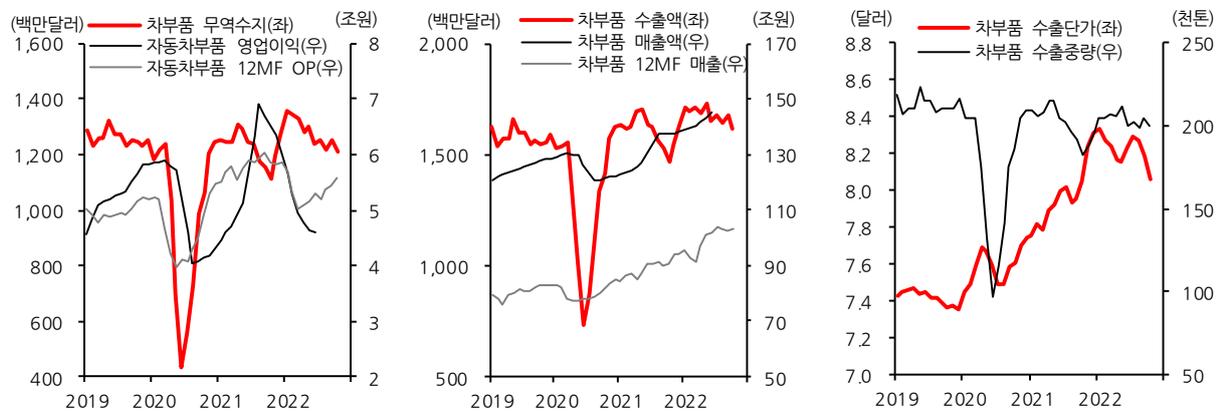
자료: 관세청,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자동차: P, Q 모두 비교적 양호



자료: 관세청,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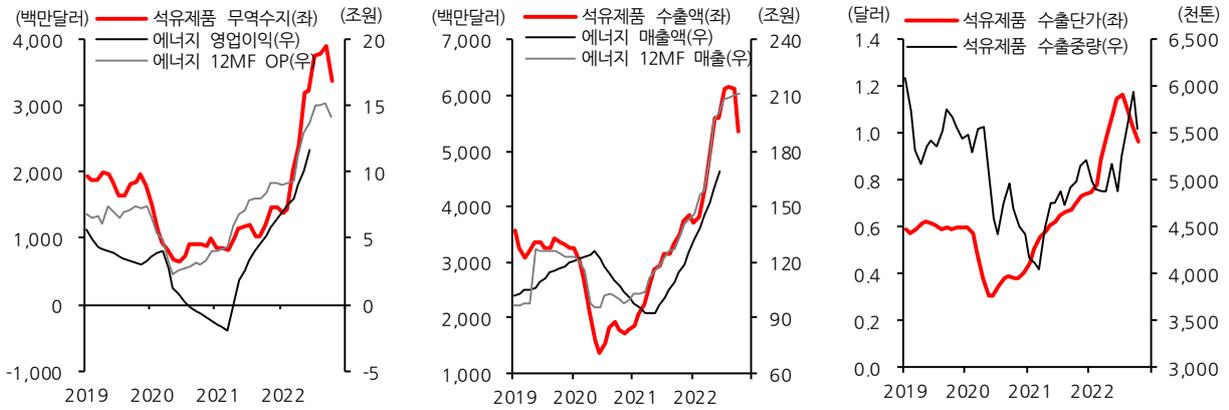
[그림9] 자동차부품: 단가 하락 및 물량 감소



주: 무역수지, 수출액, 수출단가, 수출중량은 3개월 이동평균.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12개월 rolling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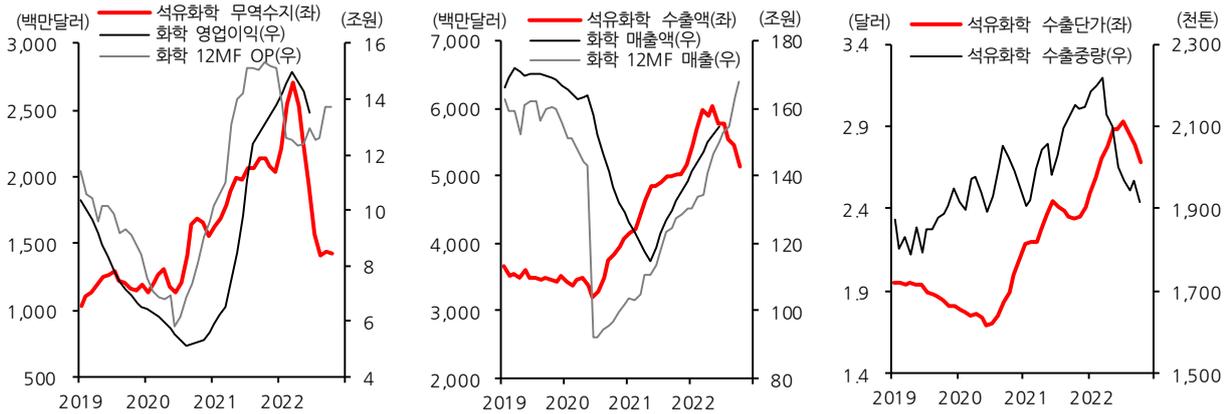
자료: 관세청,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석유제품: Peak out 조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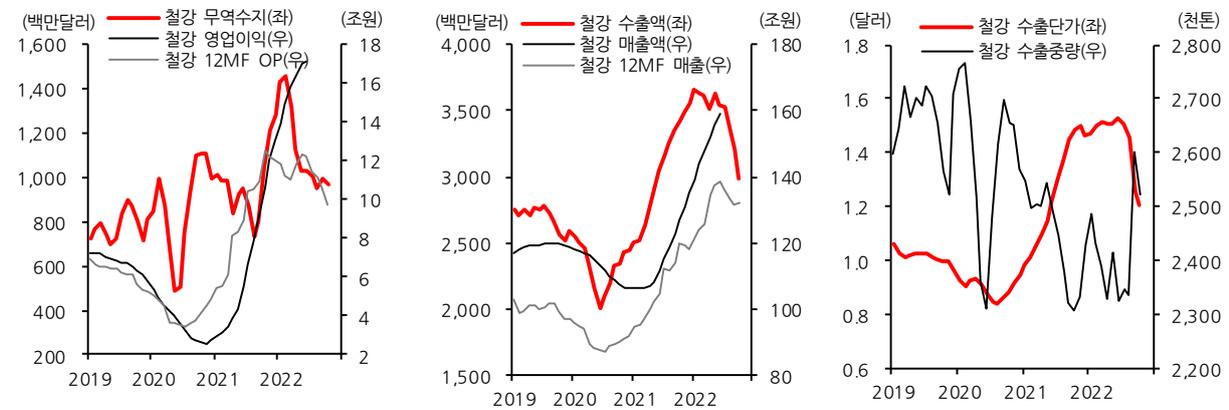
자료: 관세청,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석유화학: Peak out 지속



자료: 관세청,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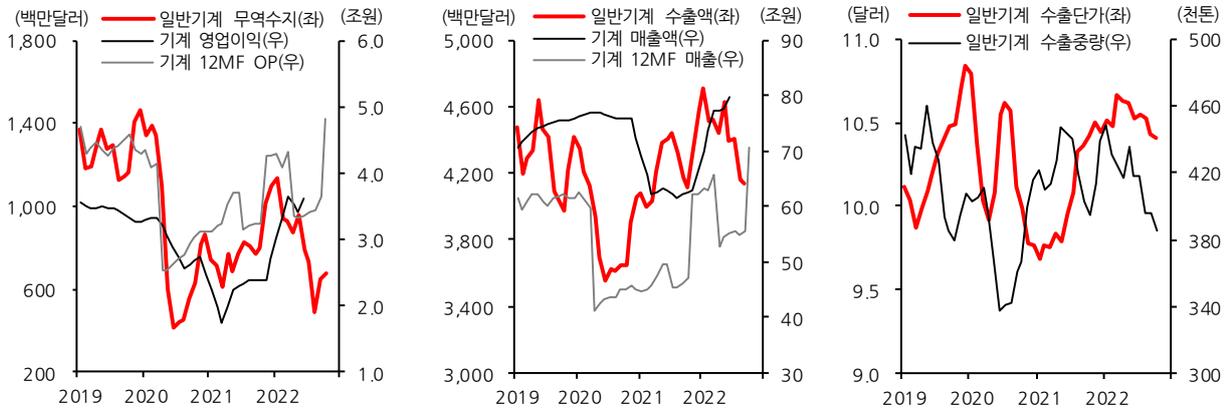
[그림12] 철강: Peak out 지속



주: 무역수지, 수출액, 수출단가, 수출중량은 3개월 이동평균.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12개월 rolling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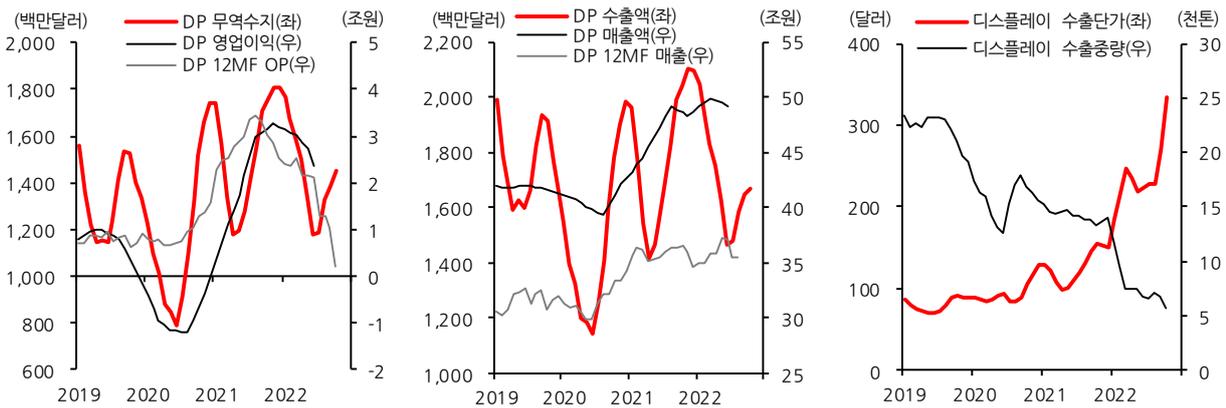
자료: 관세청,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기계: 하반기 들어 둔화 압력 확대



자료: 관세청,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디스플레이: 단가 회복되고 있으나 물량 부진



자료: 관세청,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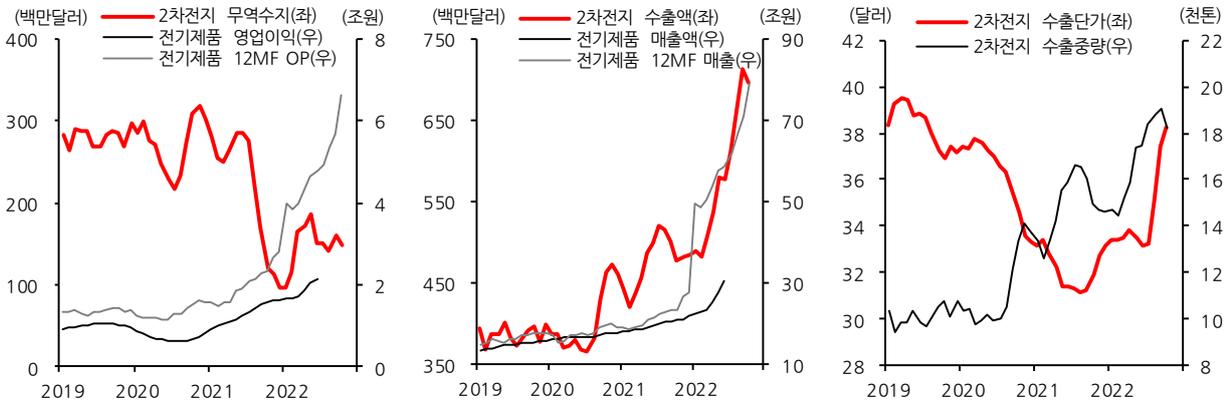
[그림15] 무선통신기기: 여전히 미약한 회복 조짐



주: 무역수지, 수출액, 수출단가, 수출중량은 3개월 이동평균.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12개월 rolling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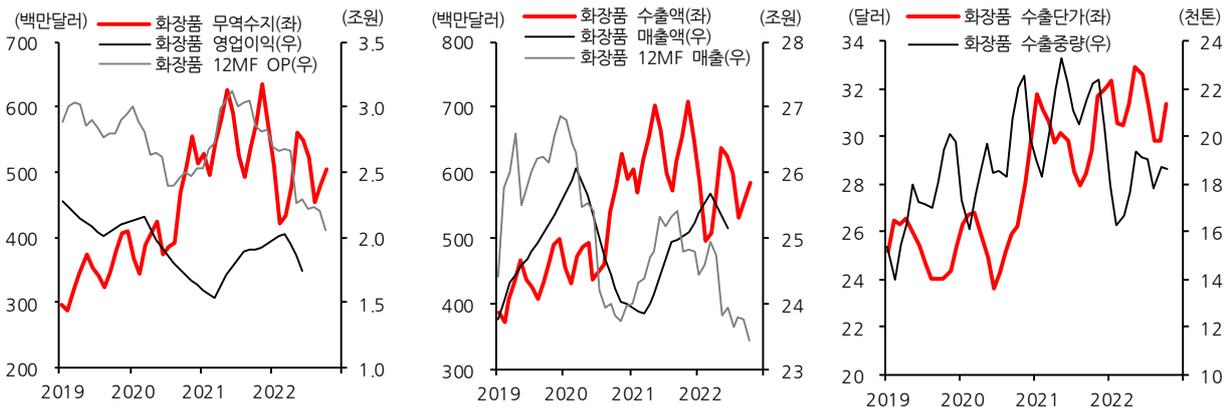
자료: 관세청,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2차전지: 단가 하락 및 물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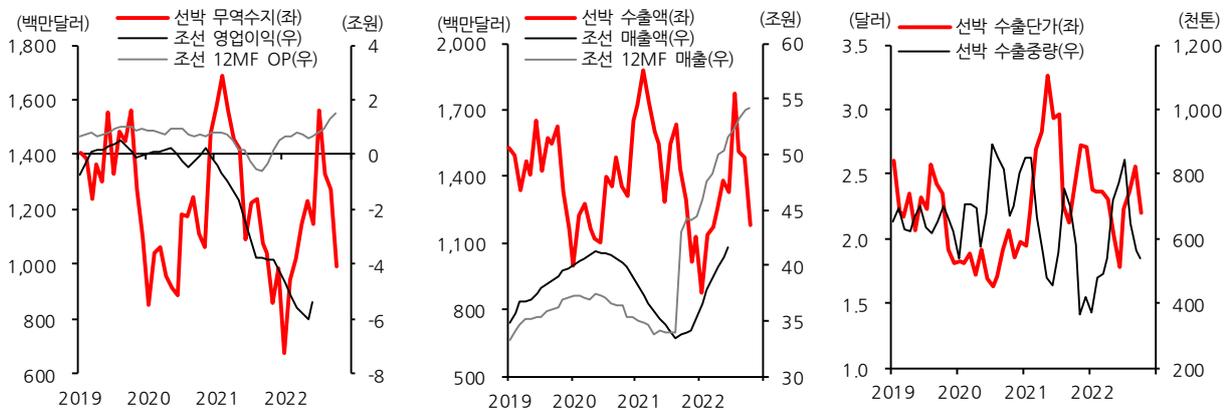
자료: 관세청,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화장품: 4개월 만에 단가 상승



자료: 관세청,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선박: 단가 상승 및 물량 증가



주: 무역수지, 수출액, 수출단가, 수출증량은 3개월 이동평균.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12개월 rolling 기준
 자료: 관세청,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